

‘삼-’ 구문의 ‘로’ 부사어의 문법과 의미

이 은 섭
(울산대학교)

국문초록

본고는 동사 ‘삼-’이 형성하는 구문에 대한 통사·의미론적 논의이다.

첫째,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는 보충어로서 서술어에 가장 인접하여 실현된다. 이는 엑스-바 이론을 수정하고 가변 중간 투사론을 원용하여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둘째, 이 구문의 ‘로’ 부사어는 대상역 목적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삼-’이 표상하는 행위는 변성의 의미 과정을 함축하는데, 목적어는 변성되는 대상이며 ‘로’ 부사어는 변성된 대상의 결과적 정체성을 표상한다. 결국 목적어와 ‘로’ 부사어는 각각 대상과 그 대상이 귀결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문장에 실현되는 순서는 ‘목적어-‘로’ 부사어’의 형상으로 고정된다.

셋째, ‘로’ 부사어는 서술어 ‘삼-’과 긴밀한 관계 하에 놓인다. 즉 두 성분은 강한 인접성을 지니며, ‘로’ 부사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 부사어가 통사적으로는 ‘삼-’의 보충어이며, 개념적으로는 ‘삼-’의 의미론적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필수 성분이라고 간주한다.

주제어

‘로’ 부사어, 보충어, 필수 성분, 가변 중간 투사론, 전국적 변성, 제한적 변성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동사 ‘삼-’ 구문의 ‘로’ 부사어가 지닌 문법적 속성과 의미적 속성을 구명하는 것이다. ‘삼-’은 세 자리 서술어로서 ‘X가 Y를 Z로 V-’의 문형을 형성한다.¹⁾ 통사적으로 동사 ‘삼-’이 개념 구조 형성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세 개의 논항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구문에서 조사 ‘로’가 통합하여 형성되는 부사어의 경우는 일반적인 부사어와는 이질적인 양상을 보인다.

(1) 철수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다.

부사어는 대체적으로 부가어적 성격을 띠는 성분으로 기술되어 왔다.²⁾ 그러나 ‘삼-’ 구문의 ‘로’ 부사어는 이 동사가 형성하는 개념 구조의 필수 요소이다. 즉 논항의 자격을 지닌다. 이는 다음 예문에서 입증된다.

(1') *철수가 영화를 삼았다.

(1')은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으면 그 문장이 적형성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한편 임홍빈·장소원(1995)에서는 부사어의 성격을 그 분포를 기준으로 분류한 바 있다. 그러한 견해에 입각한다면, ‘로’ 부사어는 동사 부사어적 면모를 보인다.

(1'') 가. *철수가 며느리로 영화를 삼았다.

나. *며느리로 철수가 영화를 삼았다.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삼-’ 구문의 ‘로’ 부사어는 ‘잘’이나 부정 부사류

1) ‘삼-’ 구문의 형식에 대하여는 홍재성 외(1997)과 중규모 세종 전자사전, 유혜원(2004) 등을 참조할 것.
2) 물론 기존 연구에서도 이 성분이 논항적 성격임이 언급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임홍빈·장소원(1995), 홍재성 외(2002), 유혜원(2004), 선지성(2005), 이은섭(2008) 등이 있다.

들과 마찬가지로 동사 직전에만 분포할 수 있다. 분포 속성상으로 본다면 '로' 부사어는 동사 부사어인 것이다.

본고는 이상과 같이 '삼-' 구문의 '로' 부사어가 보이는 필수성과 분포 제약 양상 등의 통사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삼-' 구문의 문법적 양상에 의미적 속성이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의 문제와 그 구조의 기술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를 구명할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 구문의 구조 기술이 어떠한 양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기술한다. 세 자리 서술어로서의 '삼-'이 형성하는 문장이 생성문법의 엑스-바 도식으로는 완전히 기술될 수 없음을 보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변 중간 투사론에 입각하여 '삼-' 구문의 구조를 기술한다. 이러한 기술을 통해 '로' 부사어의 구조적 정체성이 확인될 것이다.

둘째, '로' 부사어의 분포 제약과 생략 불가능성을 통사, 의미론적 차원에서 논의한다. '로' 부사어가 목적어와 맺는 특정한 의미론적 관계에 대하여 기술하고, 이 의미론적 관계가 '로' 부사어의 분포 제약에서 목적어에 후행하여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고정적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일 것이다.

셋째, '로' 부사어가 서술어 '삼-'에 대하여 강한 인접성을 갖는 현상과 생략 불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한다. 서술어 '삼-'에 인접하여 실현되는 '로' 부사어의 성격과 적절한 맥락에서도 생략될 수 없는 특성을 고찰함으로써, 이 성분의 특성과 '삼-'과의 관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2. '삼-' 구문의 구조 기술

'삼-' 구문의 구조 기술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로' 부사어의 정체성이다. 이 성분이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지니는가에 따라 '삼-' 구문 전체의 구조 기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일단 '로' 부사어가 문자 그대로 부사어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출발해 보자.

생성문법적 관점에 따르면 부사어는 문장의 확대 투사에 기여하는 바가 없

어서 부가어적 용법만을 보인다(Chomsky(1981, 1986), Radford(1988), Haegeman(1994) 등). 그러나 엑스-바 이론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만 있으면 ‘삼-’ 구문의 ‘로’ 부사어들을 부가어로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2) ㄱ. [VP 철수가 [V' 영희를 [ADVP 떠느리로] [V 삼-]]]
 ㄱ'. * [VP 철수가 [V' 영희를 [V 삼-]]]
 ㄴ. [VP 철수가 [V' 밥을 [ADVP 은수저로] [V 먹-]]]
 ㄴ'. [VP 철수가 [V' 밥을 [V 삼-]]]

(2ㄱ)은 엑스-바 이론에 입각하여 (1)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2ㄴ)은 문형이 (1)과 동일하지만 ‘로’ 부사어의 성격이 다른 타동사문의 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2ㄴ)의 경우에는 ‘로’ 부사어가 전형적인 부가어의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2ㄴ')과 같이 생략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2ㄱ)은 ‘로’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에 (1'), (2ㄱ')에 나타난 것처럼 비문이 된다.

부가어는 핵 범주의 확대 투사와 무관한 범주이므로 (2ㄴ')과 같이 생략되어도 문법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생략될 수 없는 (2ㄱ)의 ‘로’ 부사어는 동사 핵 성분의 확대 투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 범주는 부가어가 아니다. 엑스-바 이론에서 어떤 성분이 부가어가 아니라면 그것을 지정어 범주나 보충어 범주 중 하나로 보아야 한다. 지정어 범주는 엑스-바 이론에 근거하자면 핵 범주의 보충어 범주보다 외곽에 투사되어 최대 투사 범주를 형성하기 때문에 동사에 가장 인접해서 실현되는 문제의 ‘로’ 부사어는 지정어 범주로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범주는 부가어도 지정어도 아니므로 동사 핵의 보충어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한편 (1)의 ‘로’ 부사어를 보충어로 본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조 표시를 위하여 원용한 엑스-바 도식에서 이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Radford(1988)를 비롯하여 생성문법을 설명한 이론서에서는 대략적으로 엑스-바 도식에서 보충어와 지정어는 각각 하나뿐인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2ㄱ)의 경우에서 우리는 이러한 도식의 경직성이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임흥빈(2000/2005)의 가변 중간 투사론을 수용하여 부사어들 중 필수 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절점의 바 층위를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위 논의에서는 통사 구조를 도출적 관점이 아닌 분석의 관점에서 조망한다. 그러므로 문장의 도출 순서와 방식의 설명에 있어서 필수적인 투사의 개념이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는 투사의 형상성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엑스-바 도식의 유용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다(임흥빈(2000/2005: 281~285)). 즉 기존 생성문법에서의 엑스-바 이론은 어휘 내용의 정보를 전혀 참조하지 않고 추상적이며 기계적인 도출 양상을 엑스-바 도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나 엑스-바 도식의 무차별성의 결함과 무근거성의 결함이 극복되어 투사 혹은 범주 결합의 획일성과 보충어 수에 대한 비현실적 제한이 철폐된다면,³⁾ 엑스-바 도식은 여전히 유용한 구조 표시의 형상적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가변 중간 투사론을 원용하여 (1)의 (2-1)을 수정하면 아래와 같다.

(3) [VP 철수가 [VBB(=V ") 영희를 [VB(=V ')며느리로 [V 삼]]]]

(3)은 (2-1)의 엑스-바 도식의 틀을 가변 중간 투사론적 관점에서 수정한 것이다. 이러한 도식이 의미하는 사항 몇 가지를 추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은 가변 중간 투사론의 견지에서 국어의 최대 투사 범주의 보충어 수가 하나 이상인 경우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국어에 존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의 성분 중 주어와 목적어 성분 이외의 성분 문제에 공허한 기술적 설명을 추가하지 않고도 그 구조적 위치와 성분적, 범주적 정체성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경험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공허하고 추상적인 이론 중심의 기술적 설명은 존재할 수 없고, 자연히 그러한 기술이 불리일으킬 언어 현상에 대한 어떠한 왜곡도 존재하지 않는다.⁴⁾

3) 무차별성의 결함과 무근거성의 결함에 대하여서는 임흥빈(2000/2005: 286~294)를 참조할 것.

둘째, ‘로’ 부사어가 동사 핵 ‘삼-’에 대하여 지니는 구조적 긴밀성을 포착할 수 있다.⁵⁾ 분포와 관련해서 제시되었던 앞의 (1")의 예문들을 다시 가져와 보자.

- (4) ㄱ. *머느리로 철수가 영회를 삼았다.
 ㄴ. *철수가 머느리로 영회를 삼았다.

(3)에서 VB 범주로 형성된 ‘머느리로 삼-’은 구조적으로 단단히 결속되어 있어서 (4)에서와 같이 ‘머느리로’ 성분의 전치가 전혀 불가능하다. (1)은 도출이나 분석, 어느 관점에서 보든 범주의 결합 순서가 일부 고정되어 있는 구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3)에서와 같이 그 구조적 양상에서 범주의 결합 순서를 고정시켜 놓고 이를 무표적 어순으로 상정할 수 있다.

셋째, 앞에서 우리는 ‘머느리로’를 그 분포를 기준으로 동사 부사어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바 있는데, 사실 이 성분은 단순히 분포만으로 그 속성을 모두 명세할 수 없다. 부정 부사나 ‘잘’과 같은 일련의 동사 부사어들이 보이는 범주 속성과 통사적 행태가 (1)의 ‘로’ 부사어와 결정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 (5) ㄱ. [VP 철수가 [VB 밥을 [ADVP 안 [V 먹-]]]]
 ㄱ'. [VP 철수가 [VB 밥을 [V 먹-]]]
 ㄴ. [VP 철수가 [VB 밥을 [ADVP 잘 [V 먹-]]]]
 ㄴ'. [VP 철수가 [VB 밥을 [V 먹-]]]

(3)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의 ‘로’ 부사어는 확대 투사에 관여하는 보충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구조 기술의 측면에서 핵인 동사 범주와 통합하여 VB 범주를 형성한다. 물론 전술한 바와 같이 생략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5ㄱ)과 (5ㄴ)의 부사어 ‘안’과 ‘잘’은 부가어 범주이므로 동사와 통합하여도 확대 투사가 이루어

4) Larson(1988)에서 제시한 VP-shell 구조나 이를 수용하여 국어의 장형 부정문의 구조를 설명한 강명윤(1992) 등에서 이론을 위한 이론적 형식화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이은섭(1996: 56-58)에서 위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을 행한 바 있다.
 5) 이러한 구조적 긴밀성이 형태론적 측면에서 어떠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4장에서 기술될 것이다.

지지 않는다. (5₁′)과 (5₂′)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생략도 가능하다.

부사어 중에서 필수 성분인 필수 부사어는 핵이 요구하는 논항, 서술어가 요구하는 보충어로 파악하여 (3)과 같은 양상으로 구조 기술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 기존 부사어의 논의에서 분포적으로 고정된 부정 부사나 ‘잘’과 같은 부사들이 자신이 수식하는 성분이 핵일 경우에 그 분포의 인접성과 고정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부사어가 마치 핵의 보충어와 같은 성분으로 파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5)에서 예로 든 동사 부사어들은 필수성을 결하고 있으므로 부가어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가변 중간 투사론을 원용하여 (1)의 구조를 (3)과 같이 표시함으로써 이론적 맹점을 지닌 엑스-바 도식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엑스-바 이론을 수정하여 보충어의 수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필수 성분인 ‘삼-’ 구문의 ‘로’ 부사어가 지닌 문장 성분적 정체성을 구조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로’가 필수 성분인 보충어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된 이상 ‘로’ 부사어가 ‘삼-’ 구문에서 주어나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논항의 성격을 지니며, 의미역을 할당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 또한 명백해졌다.

이제 다음 장에서 ‘삼-’ 구문의 ‘로’ 부사어가 보이는 행태를 의미적 차원과 통사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으로 기술하기로 하자.

3. 변성의 의미 속성과 ‘로’ 부사어’의 목적어 후행 분포 양상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핀 ‘삼-’ 구문의 보충어 ‘로’ 부사어가 논항으로서 갖는 의미적인 측면을 살피고,⁶⁾ 선행하는 목적어 논항과의 통합 관계에서 발견되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변성’이라는 의미 과정을 ‘로’ 부사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러한 의미 과정이 논항이 할당받는 의미역과 여타 논항 간의 어순 관계 등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6) 이홍식(2000: 219)에서는 ‘로’ 보충어의 의미를 동작에 대한 재료, 방편, 도구와 행위의 결과나 목적의 의미 정도로 대별하고 있다. ‘삼-’ 구문의 경우 ‘로’ 부사어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논의할 것이다.

3.1. 변성의 속성

변성(變性)은 축자적으로 ‘속성의 변화’를 일컫는 용어로 유동석(1984), 남기심(1993) 등에서 언급되어 왔다. ‘속성의 변화’를 겪는 대상이 목적어로 표상되는, 그리고 ‘삼-’ 구문과 동일한 문형을 갖는 예문들에서 우리는 변성의 현상을 목도할 수 있다.⁷⁾

- (6) ㄱ. 선생님이 철수를 반장으로 임명하셨다.
- ㄴ. 그들은 모임을 평화추진위원회로 가칭하였다.
- ㄷ. 철수를 여자로 가정하고 이야기를 꾸며 보자.
- ㄹ. 철수가 영희를 머느리로 여겼다.

(6)의 예문들은 모두 목적어 성분과 ‘로’ 부사어 성분이 일정한 의미 관계 하에 놓인다. 그러나 이들을 일괄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할 수는 없는데, 그 이유는 변성의 속성 자체가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6ㄱ)에서는 선생님의 임명을 통하여 ‘철수’가 ‘반장’이 된 것이고, (6ㄴ)에서는 그들의 가칭 행위를 통해 ‘모임’의 이름이 ‘평화추진위원회’가 되었다. 즉 ‘임명하-’나 ‘가칭하-’라는 행위가 그 행위의 대상인 목적어 논항의 속성을 변화시킨 것이고, 그 변화의 결과 상태는 ‘로’ 부사어에 나타나 있는 것이다. (6ㄱ)과 (6ㄴ)의 경우는 어떠한 대상이 특정한 행위를 통하여 추가적인 속성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특정한 행위 이전의 속성과 이후의 속성은 서로 달라진 것이다. 유동석(1984)의 논의 전반이나 남기심(1993: 319), 유혜원(2004: 199), 선지성(2005: 51) 등에서 언급한 전형적인 변성 현상에 해당된다.

한편 (6ㄷ)과 (6ㄹ) 역시 앞의 두 예문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나 (6ㄷ)과 (6ㄹ)은 앞의 (6ㄱ)이나 (6ㄴ)과는 변성의 양상 면에서

7) (6)의 예문은 ‘삼-’ 구문과 동일한 문형으로 실현되는 용례들만을 제시한 것이다. 변성과 관련되어 논의되어야 할 용례 중에서는 ‘물이 얼음이 되-’, ‘물이 술로 변하-’ 등과 같이 목적어 성분이 상정될 수 없고 주어 성분이 ‘로’ 부사어와 관련된 것들도 존재한다.

결정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6ㄷ)은 ‘가정하-’의 대상인 목적어와 ‘로’ 부사어 사이에는 속성의 덧붙임을 통한 변화가 존재하지 않는다. 혹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지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러한 변화 상태가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철수’는 ‘여자’로 가정되었으나, 그렇다고 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 것은 아니다. 철수에 여자라는 속성이 덧붙은 것이 아니고 단지 가정하는 행위가 유지되는 상황 내에서만 여자로서 간주될 뿐이다. (6ㄷ)의 양상은 (6ㄱ)과 (6ㄴ)에서처럼 특정한 행위가 수행된 후 행위 대상인 목적어의 정체성이 마치 결과 상태와 같이 지속되는 양상과는 다르다.

더욱이 (6ㄷ)의 경우는 동일한 맥락에서 더한 이질성이 포착된다. 동사 ‘여기-’는 주체의 사유 행위를 표상한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동작성을 전제할 수 없는 주체의 사유 행위는 심지어 내적이고 극단적인 제한성을 보인다. 이는 다음 예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ㄷ) ‘. 철수가 영희를 며느리로 여겼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영희조차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6ㄷ)에서 ‘영희’는 ‘철수’에게만 ‘며느리’일 뿐이다. 더욱이 ‘영희’조차도 자신을 ‘철수’의 진정한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것은 ‘철수’의 행위 ‘여기-’가 단지 주체만의 내적 사유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효력이 드러나는 결과 상태는 인증의 특정한 절차(가령 만인 앞의 선언이나 천명 등)를 거치지 않는 한 공인될 수 없다. 행위 주체인 ‘철수’만의 사념 내에서도 그 행위가 효력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6ㄱ)과 (6ㄴ)의 목적어 논항이 ‘로’ 부사어로 인하여 추가된 속성을 지니게 되는 반면, (6ㄷ)에서는 지극히 일시적이거나 제한적이다.

이상의 관계를 이은섭(2008: 21)의 (8)에서는 (1)의 ‘삼-’ 구문과 (6ㄷ)의 ‘여기-’ 구문을 예로 들어 각각 다음과 같이 도식화한다.

- (7)ㄱ. 영희 = (철수의) 며느리(전적 변성)
- ㄴ. 영희 ≠ (철수의) 며느리(내적 변성)

(7ㄱ)은 (1)과 (6ㄱ, ㄴ)에 나타난 목적어와 ‘로’ 부사어의 의미적 관계를, (7ㄴ)은 (6ㄷ, ㄹ)에 나타난 목적어와 ‘로’ 부사어의 의미적 관계를 표상한 것이다.

이은섭(2008: 21)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변성의 성격에 따라 전자를 ‘전적 변성’으로, 후자를 ‘내적 변성’으로 명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명명은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 (7ㄱ)의 경우는 목적어와 ‘로’ 부사어의 관련성이 ‘대상-속성’의 관계를 전제로, ‘대상’을 ‘로’ 부사어로 직접 칭할 수 있게 되었다.⁸⁾ 즉 행위 ‘삼-’이 수행된 결과로 ‘영희’는 ‘며느리’가 된 것이다. 변성이 제한적이거나 한시적이 아니다. 삼고, 임명하고 가칭하는 행위를 통해 대상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모두 ‘로’ 부사어가 표상하는 것이 된다. 전적인 변성 양상이라 칭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7ㄴ)의 경우는 (6ㄷ)과 (6ㄹ)의 경우에서 완전히 동질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 차이가 발견된다. 상식적인 선상에서 남자인 ‘철수’는 ‘여자’가 될 수 없고, 특정한 환경에서 특수한 필요성에 의해 가정될 수 있을 뿐이다. 아울러 우리는 ‘며느리’인 ‘영희’를 ‘며느리’로 여길 수 없다. ‘영희’는 ‘며느리’로 여길 대상이 아니라, ‘며느리’ 그 자체일 뿐이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철수’는 ‘여자’가 아니고, ‘영희’는 ‘며느리’가 아니므로 일견 (6ㄷ)과 (6ㄹ)은 동질성의 차원에서 (7ㄴ)으로 포괄될 수 있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ㄷ)과 (6ㄹ)이 완전히 동질적이지는 않다. (6ㄷ)은 비현실적인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인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논의가 가능하다. 즉 이은섭(2008)적인 차원에서 명명한 내적 변성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6ㄷ)은 내적 변성의 속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6ㄹ)의 경우에서와 같이 내적인 사유 행위에 의해 행위의 효력, 즉 결과 상태가 사유 주체의 내부에만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7ㄴ)의 내적 변성을 ‘제한적 변성’으로, 전적 변성 또한 ‘전국적(全局的) 변성’으로 수정하여 지칭하기로 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8)ㄱ. 전국적 변성: 서술어가 표상하는 행위가 실현되어서 논항간의 관계가

8) 남기심(1993)에서는 ‘삼-’과 같은 구문을 형성하는 목적어와 ‘로’ 부사어의 의미적 관계를 ‘주어-서술어’로 해석하고 이를 소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김지은(1996)에서는 이를 의미적 주술 관계로 명명하고 있다.

의미적으로 항상 등가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철수가 영회를 며느리로 삼았다.)

- 나. 제한적 변성: 서술어가 표상하는 행위가 실현되어서 논항간의 관계가 의미적으로 한시적이거나 내적으로만 등가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경우(철수가 영회를 며느리로 여겼다.)

3.2. 변성의 의미 속성과 '로' 부사어의 목적어 후행성

이제 우리가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삼-' 구문으로 돌아와 보자. '삼-' 구문의 '로' 부사어는 그것이 유정 명사와 '로'의 통합 구성인 경우에 대상역을 받는 목적어 성분과 항상 등가 관계에 놓인다.⁹⁾ 즉 전국적 변성의 의미 관계가 구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1)의 목적어 성분인 '영희'는 '삼-'이 표상하는 행위에 의해 전국적 변성을 거쳐 '(철수의) 며느리'로 확정되었다. 즉 필수 부사어 '며느리로'는 결과역을 받는 논항이 되는 것이다.¹⁰⁾

그렇다면 주어나 목적어와 마찬가지로 보충어로서의 '로' 부사어 역시 서술어 '삼-'으로부터 의미역을 할당받아 실현된 논항인데, 주어와 목적어와 같이 성분적 위치가 필요에 따라 변하지 못하는 점이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 (9) ㄱ. 영희를 철수가 며느리로 삼았다.
- 나. *며느리로 철수가 영희를 삼았다.
- 다. *철수가 며느리로 영희를 삼았다.

9) '삼-' 구문 중에서 '팔을 베개로 삼아 누웠다.'나 '고교 졸업장을 자랑으로 삼아 떠벌리고 다녔다.'와 같이 조사 '로'와 통합하는 명사구가 유정 명사구가 아닌 경우는 전국적 변성의 결과가 표상된다고 볼 수 없다. 즉 본고에서는 직접 다루지 않았지만, '삼-' 구문은 변성의 차원에서 전국적 변성과 제한적 변성 과정을 겪는 두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여기-' 구문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러한 양상에 대해서는 이은섭(2008)을 참고할 것.

10) '삼-'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로' 부사어를 자격역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이를 결과역을 받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삼-' 구문의 '로' 부사어가 자격역을 할당받는다라는 논의가 지닌 문제점에 대한 비판은 이은섭(2008)을 참고할 것.

(9ㄱ)은 목적어 성분을 주어 앞에 전치시켜 본 것이다. 문법성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원인은 차치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타동사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바꾸는 어순 뒤섞기 현상이 가능하다고 할 때, ‘삼-’ 구문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와는 달리 ‘삼-’ 구문에서의 ‘로’ 부사어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어서 항상 목적어에 후행하여 논항 중 가장 동사에 인접해야 한다. ‘삼-’ 구문의 구조를 기술한 2장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언급된 사항이며 (9ㄴ, ㄷ = (1"), (4))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로’ 부사어가 주어나 목적어에 선행하여 실현되면 그 문장은 비문이 된다. 이 문제를 전 절에서 논의한 변성의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자.

‘로’ 부사어의 성격을 전 절에서 언급한 의미 관계, 즉 변성의 차원에서 설명한다면 이 성분이 목적어에 후행하는 고정적 분포 양상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다. ‘로’ 부사어는 사실 선행하는 목적어와의 의미 관계상 변화의 결과, 혹은 과정의 도달점을 표상한다.¹¹⁾ 즉 ‘로’ 부사어는 전국적 변성의 과정을 거쳐서 목적어에 모종의 속성이 추가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1)의 ‘철수가 영희를 며느리로 삼았다.’에서 ‘영희’는 철수의 삼는 행위를 통해서 ‘며느리’가 되는 것이므로, ‘며느리’로서의 속성은 삼는 행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즉 철수의 행위 이전의 ‘영희’는 ‘며느리’의 속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행위 이후에야 자신의 정체성에 ‘철수의 며느리’라는 항목을 더한 것이 된다. ‘로’ 부사어는 의미적으로 변성 과정을 겪는 대상의 귀결 상태를 표상하고, 서술어인 ‘삼-’이 구현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세한다.

한편 변성의 과정은 논리적인 차원에서 ‘출발점(변성 이전의 상태) → 도달점(변성 이후의 상태)’의 순으로 표상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는 유형론적으로도 입증되는데, 국어의 ‘……에서 ……로/까지’, 일본어의 ‘……から……に/まで’, 혹은 이질적인 유형의 언어인 영어의 ‘from……to……’나 독일어의 ‘von……zu……’ 구성에서도 그 동일한 어순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에서

11) 어떠한 변화는 필연적으로 모종의 과정을 함축하고, 그 과정은 논리적으로나 경험적으로 출발점과 도달점을 함축하기 마련이다. 즉 변화가 일어날 때 우리는 이러한 과정 이전의 상태에서 과정 이후의 상태로 대상이 바뀌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출발점은 목적어로 실현된 '영회를'이다. 그리고 '로' 부사어인 '며느리로'가 도달점이 된다. 그러므로 '로' 부사어가 목적어에 후행하는 (1)과 같은 어순 양상이 논리적으로나 유형론적 차원에서 무표적인 것이다.¹²⁾

결국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는 변성 과정을 거친 대상의 결과 상태를 표상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 과정 이전의 상태를 속성으로 하는, 혹은 과정의 출발점적 의미를 나타내는 대상역 목적어에 후행하여야 한다. 즉 (9ㄴ, ㄷ)의 비문 양상은 '로' 부사어가 목적어와 맺는 의미적 관계, 즉 변성이라는 의미 과정이 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한 형상성은 변성의 출발점이자 속성의 변화를 겪는 대상인 목적어가 선행하고, 목적어의 변화 결과를 표상하는 '로' 부사어가 이에 후행할 경우에만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4. '로' 부사어와 서술어 '삼-'의 긴밀성

2장에서 우리가 상정한 (1)의 구조 (3)은 '로' 부사어가 다른 필수 성분들에 비해 동사에 가장 가깝게 선행하는 양상을 구조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3장에서는 '로' 부사어가 변성 과정의 결과를 표상하는 의미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 밝혀졌다. 바로 이러한 의미 속성이 '로' 부사어가 목적어에 후행해야 하는 '삼-' 구문의 형상성에 대한 의미적 근거이다. 이제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이 성분의 특성을 기술하기로 한다. 바로 '로' 부사어가 보여주는 '삼-'과의 강한 인접성과 생략 불가능성이다.

4.1. '로' 부사어와 서술어 '삼-'의 강한 인접성

우리는 '로' 부사어가 서술어 '삼-'과 맺는 긴밀한 관계 역시 '삼-' 구문에 나타나는 '로' 부사어의 어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즉 '로' 부사어는 다른 필수 성분들보다 서술어에 가장 인접하여 분포한다. 그럼으로써 '삼-'이 구현하는 변화의 총체적 양상과 대상의 변화하여 이루어진 결과 상태의 구체적 양

12) 상세한 설명을 곁하고 있기는 하나, 이윤하(2005: 161)에서도 '로' 부사어가 목적어와 '삼-' 사이에 분포하는 것이 '삼-' 구문의 무표적 어순임을 언급하고 있다.

상을 동시에 표상해 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로’ 부사어가 부가어가 아닌 보충어 성분이라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한편 유혜원(2004: 197)에서는 ‘삼-’ 구문과 같은 유형에서 ‘로’ 부사어가 서술어보다는 다른 주성분(여기서는 목적어)과의 관계가 더 직접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문에서의 주어나 목적어, 그리고 ‘로’ 부사어는 모두 서술어 ‘삼-’이 의미론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즉 ‘로’ 부사어와 다른 주성분 사이에서 의미적 주술 관계나 변성과 같은 의미적 특성이 포착된다고 해서, 이러한 논항 간의 관련성이 ‘로’ 부사어가 맺는 서술어 ‘삼-’과의 근원적인 관계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이다.¹³⁾

우리는 ‘삼-’ 구문에서 목적어와 ‘로’ 부사어가 일정한 의미 관계 하에 놓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성분 모두 서술어 ‘삼-’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라는 입장을 유지한다. 즉 목적어와 ‘로’ 부사어의 관련성보다 서술어 ‘삼-’과 ‘로’ 부사어가 맺는 관련성이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통사적인 제약 현상을 통해서 서술어 ‘삼-’과 ‘로’ 부사어의 긴밀하고 공고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제 두 성분의 강한 인접성에 대하여 보다 직접적으로 살펴보자.

‘로’ 부사어와 ‘삼-’ 사이에는 일부 동사 부사를 제외하고 문장 부사나 동사구 부사가 분포할 수 없다.

(10) ㄱ. 자네, 영화를 머느리로 찰 잘 삼았네.

ㄴ. 지가 영화를 머느리로 안 삼곤 못 배기지.

ㄷ. *영수는 팔을 베개 곶잘/자주/여전히 삼아 드러눕곤 했다.

ㄷ'. 영수는 곶잘/자주/여전히 팔을 베개 삼아 드러눕곤 했다.

ㄷ". 곶잘/자주/여전히 영수는 팔을 베개 삼아 드러눕곤 했다.

13) 참고로 선지성(2005: 58)에서는 우리가 대상으로 삼는 필수 부사어가 일반 부사어와는 달리 분포상 제약이 심하다는 점을 근거로 서술어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 놓인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일반 부사어와 이질적인 어휘 항목 기술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필수 부사어가 동사구의 논항 구조 속에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HPSG적인 차원에서 필수 부사어를 요구하는 서술어의 어휘 표상을 시도하고 있다.

임흥빈·장소원(1995: 293~300)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문장 부사는 문장의 앞과 동사구 앞에 놓일 수 있으며,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동사 앞에서도 놓일 수 있다. 또한 동사구 부사는 대개 동사 앞에도 분포할 수 있고, 동사 부사는 동사에 직접 선행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10ㄱ, ㄴ)은 동사 부사인 '잘'과 '안'이 '로' 부사어에 후행하여 '삼-' 앞에 분포하였다. 동사 부사이므로 동사에 직접 선행한 것이다. 오히려 혹자는 다른 타동사 구문에서 서술어와 목적어 사이에도 동사 부사어가 분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 구문에서도 서술어와 '로' 부사어 사이에 이러한 동사 부사어가 분포할 수 있으므로, '로' 부사어와 서술어 '삼-' 사이의 인접성이 그다지 특이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10ㄷ)의 비문성이다. (10ㄷ)은 '곧잘, 자주, 여전히'와 같은 문장 부사나 동사구 부사가 '로' 부사어와 서술어 '삼-' 사이에 분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로' 부사어와 '삼-'이 각각 구성의 논항과 핵, 보충어와 서술어라는 통사적 구성이지만, 두 성분 사이에 강한 인접성이 내재하고 있어서 상호간의 이격을 잘 허용하지 않으려는 속성이 존재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한 인접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면, 동사구 부사나 문장 부사가 두 성분 사이에 분포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한 '로' 부사어와 '삼-'의 강한 인접성은 다음과 같이 관계절이 형성될 때 두드러진다.¹⁴⁾

- (11) ㄱ. 철수가 머느리로 삼은 영희
- ㄴ. 영희를 머느리로 삼은 철수
- ㄷ. *철수가 영희를 삼은 머느리

(11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머느리로'는 관계절의 수식을 받는 핵 명사가

14) 문장의 필수성과 수의성, 보충어와 부가어의 성격을 논의한 많은 연구들이 관계절의 핵 명사화가 필수성과 보충어의 속성에 관계된다고 언급한다. 이정택(2006)과 같이 통사적 기제가 필수성의 개념과 보충어의 속성 규명에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유현경(1994, 2005), 이흥식(2000), 박철우(2002), 이윤하(2005) 등의 연구에서는 이 기제를 운용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될 수 없다. 이는 ‘로’ 부사어가 목적어나 주어의 앞에 분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가 이러한 표제 명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이정택(2006: 247)의 각주 6)에서 피상적 차원으로만 언급된 ‘삼-’의 비자립성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철수가 영희를 삼-’으로 형성된 관계절이 비문인 까닭은 자명하다. 즉 ‘로’ 부사어의 부재가 ‘삼-’이 표상하는 행위를 불완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전 절에서 우리가 살핀 바와 같이 ‘삼-’이 표상하는 행위는 어떠한 대상에 추가로 속성을 부여하여 그 대상의 결과 상태가 드러나야만 완성된다. ‘로’ 부사어는 (11ㄱ, ㄴ)에서와 같이 관계절의 수식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화의 일부로서 관계절 내에 그러한 결과 상태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결국 ‘로’ 부사어는 서술어 ‘삼-’의 의미적 결락 혹은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므로 항상 ‘삼-’에 인접하여 분포해야만 한다.

4.2. ‘로’ 부사어의 생략 불가능성

‘로’ 부사어의 생략 불가능성 역시 이 성분과 ‘삼-’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증거가 된다. ‘삼-’ 구문의 ‘로’ 부사어는 생략이 전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구문에서의 또 다른 필수 성분인 주어와 목적어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기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로’ 부사어는 다른 논항들과 같이 생략되거나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허용하지 않는다. 모든 논항이 지닐 수 있는 잠재논항이나 반논항적 성격을 띠지 않는 것이다.¹⁵⁾

우리는 ‘질문-응답’ 쌍의 실험을 통해서 ‘삼-’ 구문에서의 주어와 목적어 성분이 지닌 생략 가능성과 ‘로’ 부사어의 생략 불가능성의 대조적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5) 이병규(1998)적인 논의를 빌자면, 서술성 명사에 가장 인접해서 실현되는 논항 이외의 논항들은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항을 이병규(1996) 등에서는 잠재 논항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임흥빈·이홍식 외(2002)에서는 의미론적으로 존재하는 논항이 통사적으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논항들을 반논항이라고 명명한다.

- (12)ㄱ. 누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니?
ㄴ. 철수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다.
ㄷ. 철수가 며느리로 삼았다.

- (13)ㄱ. 철수가 누구를 며느리로 삼았니?
ㄴ. 철수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다.
ㄷ.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다.

- (14)ㄱ. 철수가 영화를 무엇으로 삼았니?
ㄴ. 철수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다.
ㄷ. 며느리로 삼았다.

(12)에서 (13)까지의 실험을 통해 우리는 적절한 문맥만 전제된다면, '삼-'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가 각각 생략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14)의 경우는 아예 두 성분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삼-'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 성분은 모두 생략이 가능하다.

그러나 '삼-' 구문의 '로' 부사어는 주어나 목적어와는 달리 절대로 생략되지 않는다.¹⁶⁾

- (12')ㄱ. 누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니?
ㄴ. *철수가 삼았다.

- (13')ㄱ. 철수가 누구를 며느리로 삼았니?
ㄴ. *영화를 삼았다.

(12')과 (13')은 질문항에 실현된 논항들이 응답항에서 생략되는 현상과 관련하여, '로' 부사어가 주어와 목적어 성분과는 이질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주어나 목적어가 (12ㄷ)과 (13ㄷ)에서와 같이 생략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로' 부사어는 (12'ㄴ)과 (13'ㄴ)과 같이 생략될 수 없다.

16) 물론 질문을 설명 의문문이 아닌 판정 의문문으로 바꾸어 '철수가 영화를 며느리로 삼았니?'와 같은 항에 대하여서는 '삼았다.' 정도의 일어문 형성이 가능하다.

우리는 문장 성분의 생략이 적절한 문맥에서 복원 가능할 경우에만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로’ 부사어가 생략될 수 없다는 것은 생략이 가능한 여타의 필수 성분들에 비해 문맥에 의한 정보로도 보충할 수 없는 모종의 이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로’ 부사어는 주어나 목적어 성분과는 다른 차원에서 ‘삼-’과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다. ‘철수’나 ‘영희’는 행위주역과 대상역을 부여받아서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이은섭(2008)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머느리’는 결과역을 부여받아서 부사어로 실현되었다. 문제는 부사어 ‘머느리로’가 그 논항성을 ‘삼-’에 의해 보장받는 반면, ‘철수가’와 ‘영희를’은 그 논항성을 부여하는 핵이 ‘삼-’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15)ㄱ. 철수가 밥을 먹었다.

- ㄴ. 철수가 먹었다.
- ㄷ. 밥을 먹었다.
- ㄹ. 먹었다.

(16)ㄱ. 철수가 영희를 머느리로 삼았다.

- ㄴ. 철수가 머느리로 삼았다.
- ㄷ. 영희를 머느리로 삼았다.
- ㄹ. 머느리로 삼았다.
- ㅁ. *철수가 영희를 삼았다.

(15)ㄱ~ㄹ)과 (16)ㄱ~ㄹ)까지는 적절한 문맥 하에서 모두 적절한 문장이다. 그러나 (16)ㅁ)에서 ‘로’ 부사어가 실현되지 않은 ‘삼-’ 구문은 비문이 된다. 단순히 생략 차원에서의 문제로 간주될 수는 없다. 만약에 (16)ㄱ)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성분이 모두 서술어 ‘삼-’이 요구하는 논항이라면, 그래서 평판적 형상으로 상호간의 관계가 규정될 수 있다면 (16)ㅁ)의 비문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16)ㅁ)을 근거로 하여 ‘먹-’이 담당하는 서술성과 논항의 할당 기능을 ‘삼-’ 단독으로는 동일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삼-’만으로는 그것이 구현할 수 있는 행위의 구체적 양상이 드러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전 절에서 ‘로’ 부사어가 서술어 ‘삼-’과 인접하여 실현되는 양상도 사실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떡-’과 같은 서술어가 구문을 형성할 경우에 그 자체의 어휘 내항 정보에 입각하여 대상과 행위주 논항을 목적어와 주어로 실현시키는 것과는 달리, ‘삼-’은 반드시 선행하는 ‘로’ 부사어가 먼저 ‘-로 삼-’ 구성으로 통합한 후에 그 복합 구성이 행위주와 대상의 의미역을 할당하여 주어와 목적어를 통사적으로 실현시킨다고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로 삼-’의 단위성을 규정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단위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살필 수 있다. 첫째, ‘-로 삼-’을 형태론적인 구성, 즉 하나의 통사원자로 간주하는 것과, 둘째, 이를 통사적인 복합 구성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로 삼-’을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 현상을 겪은 성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은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10)에서 살핀 것과 같이 ‘로’ 부사어와 ‘삼-’ 사이에 일부 부사어가 분포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형태 구성, 즉 단어일 경우에는 어휘 고도 제약에 의거하여 내적 구성이 분리될 수 없다. 또한 ‘로’에 선행하여 통합하는 성분에 제약이 없어서 의미적으로 도구, 방편, 재료 혹은 결과나 목적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모든 성분들이 올 수 있다. 즉 ‘-로 삼-’ 구성을 단일한 형태론적 단위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가능성은 ‘-로 삼-’ 구성을 통합 관계 구성, 통사적 복합체로 보는 것이다. (11)의 관계절 핵 명사화의 실험을 제외한다면, ‘로’ 부사어와 ‘삼-’은 부사나 보조사 등의 게재를 통해 분리될 수 있다. 아울러 ‘삼-’이 ‘로’ 부사어를 논항으로 요구하며, 의미적으로도 ‘로’ 부사어가 ‘삼-’의 의미를 한정 보완하는 부사어의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므로 ‘-로 삼-’ 구성은 형태론적 차원에서 합성어와 같은 성격의 단일한 단위일 수는 없다. 특이한 점은 이 구성이 형태 구성이 아닌 통사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가 하나의 단위와 같이 논항의 할당과 타동성을 실현시킨다는 것이다.

‘로’ 부사어와 ‘삼-’이 형성하는 ‘-로 삼-’ 구성을 이러한 성격의 것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16□)에서 나타나는 비문성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통사적 복합 구성인 이 구성이 마치 하나의 통사원자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이 지닌 어휘 내적 불완전성이다.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선행하는 ‘로’ 부사어이므로, (16□)과 같이 ‘로’ 부사어가 ‘삼-’에 인접하여 실현되지 않는다면 불완전한 ‘삼-’만으로는 의미역 할당에서부터 문장 성분의 실현까지가 온전

히 이루어질 수 없다. ‘로’ 부사어는 통사적으로는 ‘삼-’의 논항이지만, 의미론적 차원에서는 ‘삼-’의 행위를 성립시키는 데 필수 불가결한, 그리고 그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상해주는 성분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로 삼-’ 구성의 성격을 통사적으로는 복합 구성이지만, 개념적으로는 단일한 통사원자로 보는 셈이 된다. 즉 1장에서 구조 (3)을 통해 살펴 바와 같이 ‘로’ 부사어가 서술어 ‘삼-’에 일차적으로 통합하는 보충어이다. 그리고 이 구성은 일부 동사 부사어들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합성어와 같은 단일한 통사 원자가 될 수는 없다. 그런데 일단 이러한 일차적 통합 과정을 거쳐 형성된 통사적 복합 구성 ‘-로 삼-’은 마치 하나의 서술어와 같이 그 전체가 의미론적인 합성 과정을 거친다. ‘-로 삼-’ 구성은 이 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화된 ‘삼-’의 행위, 정확하게는 ‘-로 삼-’이 표상하는 행위의 개념 구조에 부합하도록 행위주 논항과 대상 논항을 취하여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시키는 것이다.¹⁷⁾ 결국 ‘삼-’ 구문의 주어와 목적어는 정확하게는 ‘-로 삼-’ 구성의 주어와 목적어인 것이다.

‘-로 삼-’ 구성의 성격을 이러한 방식으로 파악할 경우에만, 앞에서 다루었던 ‘삼-’ 구문에서의 ‘로’ 부사어의 행태가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즉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가 목적어에 후행해야 한다는 분포적 고정성은 ‘로’ 부사어가 여타 필수 성분보다 서술어 ‘삼-’에 강하게 인접하여야 한다는 경향성과 맞물려 있다. 그 결과 ‘로’ 부사어는 자연스럽게 목적어에 후행하고 ‘삼-’에 선행 인접한다는 고정적 분포 속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서술어 ‘삼-’이 자신의 의미론적 결합을 보완하여 행위를 구체적으로 표상하기 위하여 ‘로’ 부사어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삼-’이 의미론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사실은 ‘로’를 제외하고 ‘삼-’ 단독으로는 행위주 논항과 대상 논항을 주어와 목적어로 실현시킬 수 없다는 점을 통해서 나타난다. 더욱이 ‘로’ 부사어가 어떠한 문맥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생략될 수 없다는 사실이 ‘삼-’의 불완전성을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17) 이는 이은섭(2006), 나 등에서 기술된 ‘굴-’ 구문의 양상을 연상시킨다. ‘굴-’ 구문과 ‘삼-’ 구문 모두 최현숙(1988)적인 의미로 개념적 재구조화를 겪는 것이다.

5. 결론 및 남은 문제

우리는 지금까지 '삼-' 구문에서 필수 성분인 '로' 부사어가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을 다루었다. 이제 위에서 기술된 사항을 정리하고 남은 문제를 언급하면서 논의를 맺고자 한다.

첫째,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는 보충어로서 서술어에 가장 인접하여 실현된다. 이는 엑스-바 이론을 수정하고 가변 중간 투사론을 원용하여 구조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둘째, '로' 부사어는 대상역 목적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을 맺는다. '삼-'이 표상하는 행위는 변성의 의미 과정을 함축하는데, 목적어는 변성되는 대상이며 '로' 부사어는 변성된 대상의 결과적 정체성을 표상한다.

셋째, 목적어와 '로' 부사어는 각각 대상과 그 대상이 귀결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들이 문장에 실현되는 순서는 '목적어-로' 부사어'의 형상으로 고정된다.

넷째, '로' 부사어는 서술어 '삼-'과 긴밀한 관계 하에 놓인다. 즉 두 성분은 강한 인접성을 지니며, '로' 부사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략이 불가능하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로' 부사어가 통사적으로는 '삼-'의 보충어이며, 개념적으로는 '삼-'의 의미론적 불완전성을 보완해주는 필수 성분이라고 간주한다.

본고에서 다루지 못 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의가 주로 유정물 대상의 목적어와 그 결과를 표상하는 '로' 부사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각주 9)에서 언급한 '팔을 베개로 삼아 누웠다.'나 '고교 졸업장을 자랑으로 삼아 떠벌리고 다녔다.' 등의 구문까지를 포괄적으로 기술한다면, '삼-' 구문 전체의 변성적 의미 속성이 그 전모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삼-'의 어휘 개념 구조를 보다 치밀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철수가 영희를 머느리로 삼-'과 '철수가 영희로 머느리를 삼-'의 관련성 문제를 다루지 못하였다. 지면의 문제상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없지만, 이는 '삼-'의 다의성/동음이의성의 문제와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즉 '로 삼-' 구성과 '-를 삼-' 구성의 의미역과 통사적 실현 양상이 상당히 이질적이

라는 측면에서 그러한 이질성을 중시한다면 위의 두 구문에서의 ‘삼-’을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셋째, 논의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못하였으나 표준 국어대사전에 ‘거울삼-, 자랑삼-, 장난삼-, 참고삼-’ 등이 합성어로 등재되어 있다. 물론 통사적 복합 구성으로 처리되어 등재되지 않은 ‘벗 삼-, 시험 삼-, 취미 삼-, 핑계 삼-’ 등이 위의 등재어들과 그 빈도수나 직관상 어떠한 차이를 지녀서 달리 처리되었는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위의 합성어들의 존재는 통사적 구성의 단어화 문제,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각의 어기적 성분들의 긴밀성, ‘삼-’ 구문에서 ‘로’ 부사어의 조사 ‘로’의 비실현 양상(‘*장난으로 삼-’은 특이하다) 등 형태·통사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들과 관련되어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끈다. 후고를 기약한다.

❖ 참 고 문 헌

- 강명윤, 『한국어 통사론의 체문계』, 한신문화사, 1992.
 고영근·구본관,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2008.
 김지은, 『조사 ‘-로’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 『제24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 논문집』, 국어학회, 95~120, 1996.
 남기심,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1993.
 남기심, 『현대국어 통사론』, 태학사, 2001.
 박철우,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제34호, 한국언어학회, 2002, 75~111쪽.
 선지성, 『한국어 필수 부사어 연구-서술어와의 통사·의미적 상관성-』, 『언어학연구』 100,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어학과, 2005.
 유동석, 『‘로’의 이질성 극복을 위하여』, 『국어학』 13, 국어학회, 119~144쪽, 1984.
 유혜원, 『‘N-로’를 필수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 연구』, 『한국어학』 24, 한국언어학회, 189~220쪽, 2004.
 유현경, 『논항과 부가어』, 『우리말글연구 1』, 우리말학회, 175~196쪽, 1994.

- 유현경, 「부사절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29, 159~185쪽, 2005.
- 이남순, 「에와 로의 통사와 의미」, 『언어』 8-2, 한국언어학회, 213~239, 1983.
- 이병규, 『잠재논항의 개념 정립, 국어 문법의 탐구Ⅳ』, 태학사, 123~174, 1998.
- 이윤하, 「-(으)로' 조사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41, 국어국문학회, 133~169, 2005.
- 이은섭, 「현대 국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 『국어연구』 140, 국어연구회, 1996.
- 이은섭, 「-게 굴다' 구문의 여격 성분과 대격 성분에 대한 고찰」, 『어문연구』 129, 한국어 문교육연구회, 31~56, 2006 ㄱ.
- 이은섭, 「'굴다' 구문의 유형과 통사 구조」, 『국어학』 48, 국어학회, 203~232, 2006 나.
- 이은섭, 「필수 부사어 'X-로' 성분에 대하여- '여기-' 구문과 '삼-' 구문의 '로' 부사어의 통합적 의미역 할당-」, 『2008년 개신어문학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개신어문학회, 16~30, 2008.
- 이정택, 「필수성과 수의성의 본질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한국어학』 30, 한국어학회, 244~266, 2006.
- 이지수, 「부사격 조사 '에'와 '로'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149, 국어연구회, 2007.
- 이호승, 「국어 복합서술어 연구: [명사+조사+동사] 구성의 경우」,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홍식, 『국어 문장의 주성분 연구』, 월인, 2000.
- 임흥빈, 「{로}의 선택과 양태화」, 『어학연구』 10: 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43~159쪽, 1974.
- 임흥빈, 『국어문법의 심층』 1·2·3, 태학사, 1998.
- 임흥빈, 『가변 중간 투사론, 21세기 국어학의 과제』, 월인, 2000.
- 임흥빈, 『우리말에 대한 성찰』 1, 태학사, 2005.
- 임흥빈·장소원, 『국어문법론 I』,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1995.
- 임흥빈·이홍식 외, 『한국어 구문분석 방법론』, 한국문화사, 2002.
- 최현배, 『우리말본』, 정음사, 1937/1982.
- 최현숙, *Restructuring Parameters and Complex Predicates: A Transformational Approach*, 서울: 한신문화사, 1988.
- 홍재성 외,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 1997.
- 홍재성 외, 「21세기 세종계획 전자사전 개발 분과 연구보고서」, 문화관광부·국립국어연구원, 2002.
- Blake, B. J., *Ca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1981.
- Chomsky, N., *Barriers*, The MIT Press, 1986.
- Cruse, A., *Meaning in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Grimshaw, J., *Argument Structure*, The MIT Press, 1990.
- Haegeman, L., *Introduction to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Basil Blackwell, 1994.
- Jackendoff, R.,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Grammar*, MIT Press, Cambridge, 1972.
- Larson, R., On the Double Object Construction, *Linguistic Inquiry* 19-3, 335~391, 1988.
- Radford, A., *Transformational Grammar: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 Saeed, J. I., *Semantics* second edition, Blackwell publishing, 2003.

❖ ABSTRACT

A Study on '로' adverbial in the '삼-' construction

Lee, Eunsup

This paper aims to make clear characteristics of '로' adverbial in the '삼-'(make someone/something to be) construction. Especially we have attention to the structural and semantic properties of '로' adverbial in this construction.

We can easily catch the phenomenon that '로' adverbial adjoins to the verb '삼-' in the '삼-' construction. There are some reasons.

Firstly, the '로' adverbial concerns with the object(THEME). When the act of '삼-' is represented grammatically, this result state of affair implicates that the object become to be changed in the aspects of properties. And then '로' adverbial indicates the result state of this object in this case. Automatically it appeared that there is fixed order between the object and the '로' adverbial in this construction.

Secondly, the '로' adverbial is in close connection with the verb '삼-' in this construction. There are very strong tendency two element have to be adjoined directly. Moreover it is impossible that the '로' adverbial to be deleted.

In Conclusion, '로' adverbial is a complement element syntactically and a obligational element which supplements semantically the defectiveness of the verb '삼-' in this construction.

Key Words

'로' adverbial, complement, obligational element, change of property

182 비교문화연구 제12권 제1호 (2008)

논문접수일: 2008. 4. 30.

심사완료일: 2008. 6. 3.

게재확정일: 2008. 6. 13.